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인간과 죄, 세션 10, 죄의 현대적 의미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인간과 죄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는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0, 죄의 현대적 중요성입니다. Mahony, A Theology of Sin for Today: A Biblical Description of Sin.

우리는 죄의 교리에 대한 강의를 계속합니다. DA 카슨의 에세이는 우리에게 이 주제를 소개합니다. 그는 그것을 죄의 현대적 중요성이라고 부르고, 그는 아직 그 지점까지 가지 않았지만, 죄와 율법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탄의 역사에 묶인 죄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런 다음 그는 죄를 죄라고 부르며, 다른 신학적 구성, 죄와 인간 교리, 죄와 구원 교리, 인류학, 구원론, 죄와 성화, 넷째, 죄와 율법에 얽혀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은 죄가 불법이라고 말합니다(요일 3:4). 어떤 사람들은 이 선언을 죄에 대한 유일무이한 얇은 정의로 일축하지만, 사실 누구의 율법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생각하면 고통스러운 정도로 통찰력 있는 것입니다. 개념적으로 이것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것은 죄라는 격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이고 누가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될지 기억해 보면, 가장 중요한 계명은 마음과 영혼과 정신과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께서 주장하신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른 계명을 어길 때마다 변함없이 어겨지는 계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에 대한 좋은 정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의 오명은 하나님과 그의 율법에 대한 도전에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율법 사이의 관계는 복잡합니다. 그것은 여러 축을 따라 흐릅니다. 우리가 방금 밝힌 첫 번째는 죄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따라서 하나님 자신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신이 명령한 것을 하지 않고 신이 금지한 것을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일반 고백서의 말로, 인용하자면, 우리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고, 우리가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했으며, 우리 안에는 건강이 없습니다. 인용문 닫기. 그러나 다른 축을 따라 생각하면, 법은 실제로 죄를 자극하여 죄를 폭발시킵니다.

다시 말해, 죄는 마음이 너무 반항적이어서 명령과 금지는 죄인들이 죄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미성숙한 십 대의 마음과 정신에서 규칙이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다시 조정하면, 율법은 이 심리적 평면에서뿐만 아니라 구속 역사의 축을 따라 작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죽음으로 이끄는 죄는 시나이에서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전에 풍부하게 존재했습니다(로마서 5 :13-14). 그래서 율법을 모세를 통해 주어진 계시로 생각할 때, 율법은 비교적 늦게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기능 중 또 다른 것은 장막, 성전, 신권, 희생 제도, 유월절과 속죄일과 같은 축제의 복잡한 구조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궁극적인 성전, 궁극적인 제사장, 궁극적인 희생, 궁극적인 유월절, 속죄의 마지막 날에 바치는 궁극적인 피의 제물인 예수께로 인도하는 궤적을 확립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죄를 파괴하는 예수를 데려옵니다. 그것은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는데, 복음만이 하나님의 권능이며 구원을 가져다줍니다.

율법은 죄와 관련하여 많은 역할을 하지만, 죄인을 노예화하는 힘과 그 결과로부터 해방시킬 힘은 없습니다. 성경에 근거한 모든 중요한 신학적 구성과 죄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것은 쉬울 것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중 몇 가지를 탐구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충분합니다. 죄에 대한 성찰은 고통과 악을 이해하는 데 필요합니다. 다섯째, 모든 진지한 신학적 토론에서 죄의 편재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방법은 지금까지 언급한 신학적 구성보다 훨씬 더 종합적이고 2차적인 신학적 분석에서 죄의 위치를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8년 또는 10년 동안 세 번 또는 네 번, 카슨은 신의 정당화, 즉 신에 대한 악의 문제에 대해 꽤 긴 강의를 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것을 그렇게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항상 그것이 How Christians Should Think About Suffering and Evil과 같은 제목이었다고 말합니다.

제가 시도한 것은 여섯 가지 주요 기둥을 땅에 박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섯 가지 기둥을 합치면 악과 고통에 대한 독특한 기독교적 성찰 방식을 뒷받침할 적절한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여섯 가지를 합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둥 하나만으로는 전혀 부족했고, 네 개나 다섯 개조차도 위험할 정도로 약해서 구조물을 제대로 지탱하지 못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모든 기둥이 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카슨의 건물에 있는 모든 기둥이 고통과 악이 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레이블을 붙인 첫 번째 기둥은 성경의 시작으로부터의 교훈입니다. 이것은 창조를 포함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결혼을 포함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하나님 아래에서 통치할 책임을 부여하시고, 그들을 목가적인 배경과 무엇보다도 자신의 존재로 둘러싸시고, 모든 것을 선하다고 선언하십니다. 이야기는 타락, 우상 숭배의 시작, 죄, 그리고 그로 인한 단기적, 장기적 영향, 여기에는 죽음과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가 포함되며, 다양한 당사자에게 선언된 저주와 그 의미에 대해 다룹니다.

잔인한 사실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실 것을 기대할 권리를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이 받을 만한 것보다 무한히 친절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제가 성경에서 어떻게 풀어지는지에 대한 신학적 성찰은 모든 전쟁, 증오, 정욕, 탐욕, 모든 범죄, 우상 숭배, 죄, 인간의 반항, 심지어 우리가 자연 재해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무엇보다도 회개에 대한 암묵적

부름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반항입니다.

신학에는 많은 의미가 있는데, 그 시작은 신이 우리에게 축복, 번영, 건강을 빚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신이 우리에게 빚진 것은 정의이며, 그 자체로 우리의 멸망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이 글의 목적에 대한 제 요점은 이 기둥, 성경적 풍경 속의 이 고정미 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충실한 방식으로 신정론의 복잡성에 대해 오래 생각하려면 성경이 죄에 대해 말하는 내용과 씨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첫 번째 기둥일 뿐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성경의 끝에서 얻은 교훈으로, 지옥, 새 하늘, 새 땅, 부활, 존재, 새 예루살렘, 불순한 것이 결코 들어오지 않을 세상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논의가 다시 죄라는 주제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리 멀리 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기둥은 섭리의 신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말하는 많은 본문들뿐만 아니라 죄로 가득 찬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말하는 본문들과도 씨름합니다.

여섯 가지 기둥을 모두 살펴보고 잘 구성되고 성경적으로 충실한 신정론을 뒷받침하는 데 대한 기여를 요약하는 것은 쉽지만, 모든 경우의 요점은 이러한 기둥이 죄에 대한 심오한 성찰에서 추상화하려고 하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죄는 모든 진지한 신학적 토론에서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단서를 얻습니다.

요약하자면, 오늘날 문화에서 죄에 대한 교리의 관련성에 대해 현실적으로 생각하려면, 그 본질적인 의미, 즉 성경적으로 결정된 신학적 성찰의 매트릭스 내에서 죄가 차지하는 위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와 ! 이 글의 두 번째 부분은 훨씬 더 간략합니다. 죄는 동시대적입니다.

우선, 죄의 본질적 중요성입니다. 이제 죄의 현대적 중요성입니다. 이 제목 아래에서, 저는 성경적으로 충실한 죄 교리가 우리 시대와 우리 역사적 위치의 일부 특성을 다루는 방식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세 가지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엄청난 폭력과 사악함이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첫째, 가장 피비린내 나는 세기를 마감한 지 불과 13년이 지났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세기를 마감한 지 불과 23년이 흘렀습니다. 홀로코스트는 단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 스탈린의 2,000만 명의 우크라이나인 굶주림, 마오쩌둥의 5,000만 명의 중국인 학살, 캄보디아 인구의 4분의 1에서 3분의 1에 달하는 학살, 투치족과 후투족의 부족 학살, 그리고 다양한 인종 청소를 더해 보세요.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 무제한 소비주의, 알코올 중독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약물 남용으로 인한 모든 피해의 물질적, 심리적 피해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연구, 데이터 처리 및 커뮤니케이션에서 엄청난 개선을 가져온 디지털 혁명은 또한 우리에게 인스턴트 포르노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남녀 관계에, 특히 결혼 생활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인종 차별의 잔인함, 약자에 대한 착취, 모든 형태의 탐욕과 게으름을 추가해야 할까요? 그리고 주로 특정 미덕의 부재인 거대하고 편재하는 죄는 어떨까요? 불경함, 불경건함, 기도하지 않음, 사랑 없는 마음, 배은망덕함. 저는 이런 강의가 이제 오히려 우울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와! 우리를 둘러싼 엄청난 증거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대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본질적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폴리아니시적 관점이 넘쳐납니다. 세상에 나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주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다른 종교, 다른 인종, 다른 정당, 다른 세대, 다른 경제 부문, 그리고 다른 하위 문화. 의심할 여지 없이 모든 세대는 실제보다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서구 세계에서 이 세대는 그러한 도덕적 맹목을 최고 수준으로 증폭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권력 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춘 헌법을 만든 이유 중 하나는 만연한 죄, 특히 권력에 대한 욕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대조적으로,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정부나 사회의 한 블록이나 다른 블록이 너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때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강력한 죄의 교리를 전파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이자 가장 분명한 현대적 의미는 그러한 가르침이 거의 보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의 첫 번째 현대적 의미는 그것이 현대적 세계관과 잘 맞아떨어져서 사려 깊은 상호 작용으로 가는 즐거운 방법을 제공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해서 그것은 죄의 고통스럽고 왜곡된 부재와 인식에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구원 역사의 흐름에서 이것은 율법의 주요 기능 중 하나였습니다. 죄를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개혁 전통의 많은 설교자들은 갈라디아서 3장을 마치 개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이 율법으로 시작하는 것이라고 명령하는 것처럼 취급했지만, 율법이 우리의 수호자라고 확신했습니다. 피다고고스 갈라디아서 3:24 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은혜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문맥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장의 초점은 개인의 회심에서 율법의 역할이 아니라 구원 역사의 드라마에서 율법의 역할에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에 대한 바울의 이해가 1~4절에서 옳다면, 왜 율법이 주어졌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19절, 왜 약속에서 성취로 매우 빨리 달려가지 않습니까? 바울은 여러 곳에서 그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적인 답변을 제공하지만, 답변의 일부는 성경의 율법이 모든 것을 죄의 지배 아래 가두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주어진 약속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갈라디아서 3:22). 그러나 율법 언약이 거의 천 년 반 동안 통치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끈기, 반복, 사악함, 노예화하는 힘, 인간 죄의 증오, 그리고 인간이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을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보여줍니다. 인간의 반역자들이 약속된 것을 믿음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비슷하게, 죄에 잠겨 있으면서도 자신의 죄를 전혀 모르는 세대는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 죄에 대한 강력한 교리를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둘째, 포스트모더니즘이 악을 식별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둘째,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을 정의하고 옹호하는 책은 15년 전보다 적다. 유럽에서는 거의 아무도 마이클 푸코를 읽지 않는다. 자크 데리다는 말할 것도 없다.

일부 미국 학부생들은 여전히 포스트모더니즘의 독성이 강한 복용량을 처방받고 있지만, 대학원생들은 점점 더 그 양조주에서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정교한 인식론적, 문화적 현상으로서, 서구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은 유통기한을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트모더니즘의 잔해, 파괴의 결과, 쓰레기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작품 중에는 악을 식별하기를 꺼리는 작품이 있는데, 대체로 옳고 그름, 선과 악이 사회적 구성물에 불과하다는 가정에 근거합니다. 그런 환경은 죄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이상적인 문화적 맥락이 아닐 수 있습니다. 도덕적 상대주의와 관련된 악은 성경이 죄에 대해 말하는 내용에 대한 바이러스성 반성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듯합니다 .

그러나 다시 한번, 죄에 대한 성경적 성찰을 절실하게 관련성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범주에 대한 깊은 문화적 적대감은 많은 설교자들이 약점, 실수, 비극, 실패, 불일치, 상처, 실망, 실명, 그리고 죄가 아닌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묘사는 왜곡되고 그의 구원 계획도 왜곡됩니다.

이 문화권에서 죄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 매우 어렵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바로 그 어려움은 죄에 대한 강력한 대우의 필요성과 따라서 현대적 중요성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새로운 관용의 최고 미덕입니다.

셋째, 죄에 대한 잘 형성된 성경적 교리 없이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표면화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관용에 대한 현재의 초점이지만, 관용은 새롭게 정의되고 새롭게 위치합니다. DA 카슨은 2012년에 *The Intolerance of Tolerance*라는 책을 썼습니다.

오 세상에. 지금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는 것은 새로운 포지셔닝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문화권에서든 관용은 종교적이든 아니든 광범위하게 합의되거나 부과된 가치 체계에 대해 논의되었습니다.

가치 체계가 문화에 자리 잡으면, 법적, 사법적 또는 기타 강압적 제재를 받기 전에 얼마나 멀리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불가피하게 제기되었습니다. 한계 내에서 많은 문화권은 어느 정도의 반대가 실제로 좋은 일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장 독재적인 정권만이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거의 관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치 체계 자체가 중요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관용의 미덕은 가치 체계 자체에 기생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회든, 실례합니다, 아무리 관용적이라 하더라도 어딘가에 한계를 그어 놓습니다.

각주, 예를 들어, 서양 문화는 다양한 성적 활동에 매우 개방적이지만 모든 서양 국가는 소아성애의 관행에 선을 긋습니다. 신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서양 세계의 대부분에서는 옳고 그름, 선과 악, 거룩함과 죄에 대한 문화적 합의가 거의 없으며, 관용은 도덕적 계층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격상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의식적으로 그 단계를 밟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다른 곳에서 설명하려고 했던 이유 때문에 관용은 진실, 도덕성 또는 널리

받아들여지는 가치 체계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관용은 문화의 판테온에서 최고의 선, 최고의 신이 되며, 종종 널리 합의된 바람직한 목표가 거의 없는 단순한 진부한 표현으로 주장하는 존재의 영역에서 말입니다. 복잡한 아이러니는 이 새로운 관용의 최고의 미덕을 끈기 있게 고수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자신과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극도로 관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여담을 하는 목적은 이 새로운 편협한 관용을 전복하는 것이 새로운 관용보다 더 소중한 것을 찾는 가치 체계를 찾는 데 크게 달려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한 쪽이 본질적인 문제에 씨름하는 대신 다른 쪽을 편협하다고 일축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문화에서 환호를 받을 때, 예를 들어 동성애적 결혼을 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현명한지 여부에 대한 성숙하고 지속적인 토론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새로운 관용이 통제되지 않으면 조만간 많은 사람을 족쇄에 묶을 것입니다.

도전을 받으려면 새로운 관용 자체보다 더 소중하고 더 높은 선으로 여겨지는 문화적 가치 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요소 중 하나는 죄에 대한 강력한 견해와 따라서 문화 속의 선과 악에 대한 견해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죄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의 현대적 중요성은 첫째, 성경 자체 내에서 죄의 위치를 이해할 때, 둘째, 우리 문화가 죄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바에 의해 다시 형성되어야 한다는 절실한 필요성을 인식할 때 가장 잘 파악됩니다.

DA 카슨의 에세이입니다.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이 에세이를 유익하고, 계몽적이며, 심지어 경고하는 내용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건과 공동 편집한 *Fallen*이라는 책에서 그의 전 멘토인 존 W. 마호니는 *A Theology of Sin for Today*를 썼습니다.

죄에 대한 타락 후의 관점을 다른 맥락에서 취한다면,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리차드 가펜의 현명한 글에 대한 감사를 담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분은 히브리서 1:1, 2에 요약된 것, 즉 구약과 신약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구분은 타락 전과 타락 후입니다. 타락과

그에 따른 죄와 그 결과가 모든 것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 두 언약은 매우 중요한 구분입니다. 타락 후의 관점과 관련하여 죄는 여러 가지 다른 측면과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죄에 대한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다음은 성경적 용법의 요약이며 타락 후의 현실에 대한 설명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죄에 대한 성경적 설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죄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과 그의 확립된 기준에 반항하는 행위입니다. 이 이중적 현실은 하나님의 의로움의 부재와 인간의 반항의 존재를 모두 반영합니다. 모든 죄, 생각, 말 또는 행동은 이러한 이중적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용어의 어휘 분석은 이러한 이중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 여러 가지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이 개념의 풍부함과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용어의 의미의 다양성은 두 가지로 좁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실패, 부족함으로 보는 표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죄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법, 요한일서 3:4. 하나님의 의로움이 부족함, 로마서 1:18.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음, 로마서 1:18, 유다서 15.

알기를 거부하는 것, 에베소서 4:18. 그리고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표적을 빗나가는 것, 로마서 3:23. 그러므로 죄는 모든 인간 행위에서 주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지 못하게 하는 빠진 특성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중 누가 하나님을 그분의 요구대로 온전히 사랑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그리고 우리 자신, 심지어 우리 자신에 대한 완전한 사랑의 요소가 우리의 모든 행동, 동기, 실례합니다,

우리의 모든 태도, 동기, 말 또는 행동에서 빠졌을 때, 그것은 주님 앞에서 그것들을 흉측하게 만듭니다.

어거스틴은 죄의 이 부정적인 측면을 박탈, 즉 창조에 내재된 좋은 특성의 부재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또한 이 박탈을 모든 죄의 본질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의 도시, 어거스틴의 신의 도시, 9.13, 9장, 13절.

또 다른 용어 집합은 죄의 긍정적 또는 능동적 측면을 특징으로 합니다. 불법 행위 또는 규정된 경로에서의 이탈, 범죄,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청력과 같은 단어는 하나님의 명령에 비추어 역동적인 저항 또는 불순종을 강조합니다.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행한 행위는 이러한 용어 각각으로 특징지어집니다.

로마서 5:14 , 범죄 . 불순종 , 로마서 5: 15-18, 범법, 불순종 , 5:19, 범법, 5:15-18. 각각의 경우, 깨진 법이 초점입니다. 타락 후의 죄는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의 기준에 반항하는 행위입니다.

바울은 또한 에베소서 2:1에서 죄의 이중적 측면을 강조했는데, 여기서 그는 영적 죽음을 허물과 죄로 표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죄는 개인적이기도 하고 사회적이기도 합니다. 죄는 정의상 고의적인 행위입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개인의 범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다양한 성경적 단어는 주로 개인의 죄에 적용됩니다. 로마서 1:3에서 죄의 보편성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조차도 개인의 행동이나 말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죄는 단순히 개인적인 범법 이상입니다. 타락 후의 현실은 또한 사회적 잘못을 특징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죄는 두 가지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각각의 죄악 행위는 전체 인간 네트워크를 교란합니다. 개별적인 말과 행동은 사회적 결과를 촉발합니다. 모든 인간의 선택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프레드릭 부흐너는 인간의 맥락을 거미줄에 비유했는데, 거미줄에서는 모든 방해가 모든 것을 떨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단기. 한 사람 아간의 죄는 아이라는 작은 곳에서 이스라엘의 패배로 이어졌습니다(여호수아 7장). 현대적 배경에서 가정 폭력, 증오 범죄, 음란물, 이혼이 가족과 더 큰 문화적 맥락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회적 죄는 편견, 증오, 광신의 악을 퍼뜨리는 사회적 구조에도 반영됩니다.

편집자와 저널리스트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해 그들의 방법이 아무리 비윤리적일지라도 기사를 가장 먼저 내놓게 하는 대형 출판사는 어떨까요?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기만의 문화가 조성되는 상황은 여러 가지가 떠오릅니다. 불신의 문화가 지배하는 기관은 어떻습니까? 직원들을 험담과 풍자의 악순환 속에서 서로 대적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적 사역의 주요 구성 요소 중 하나는 언약을 어기고 주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킨 사회적 죄에 대한 대결이었습니다. 배도에서 심판으로, 회개로, 회복으로 이어지는 사사 시대는 우상 숭배로의 사회적 표류가 계속되는 것을 반영합니다.

명확히 하자면, 구약 학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제 연구에 따르면 사사기에서 진정한 회개가 있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 형벌을 면제해 달라고, 고통을 면제해 달라고 절박하게 부르짖는 것이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범법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용하자면, 여로보암이 범하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입니다.

열왕기상 14:16. 그런 말을 거듭거듭 듣습니다. 그는 아버지 여로보암의 죄를 거듭거듭 지었습니다.

후기 선지자들에서는 아모스가 불의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아모스 5:12. “내가 네 허물이 많고 네 죄가 크다는 것을 아노라. 의로운 자를 괴롭히고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를 성문에서 돌려보내는 자들아.”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국가의 배도를 폭로했습니다. 이사야 1:2-4. 법률 제도의 부패와 함께. 이사야 10:1-4. 예레미야는 고아를 대하는 국가를 고발했습니다. 예레미야 5:28-29.

요나서는 민족주의의 부정적인 면을 폭로한 책으로, 민족적 불신과 증오를 낳은 종파주의입니다.

셋째, 죄는 고의적인 행위이며, 인간 존재의 현재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 이후의 현실은 우리의 반항적인 존재 전체, 우리가 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포괄합니다.

죄는 개인적인 행위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선택에서 발생하므로 책임의 문제입니다. 에스겔 18:4.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학생은 학교의 행동 강령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신의 도덕적 기준도 위반합니다.

간통을 저지르면서 결혼 서약을 저버린 남편은 고의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각각의 경우, 개인적인 선택이 내려집니다. 죄는 고의적인 행동입니다.

모든 죄의 행위는 죄스러운 상태나 존재 상태에서 비롯되는데, 이 또한 죄입니다. 마음의 강박함과 불신은 죄입니다. 히브리서 3:12.

살아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악하고 믿지 않는 마음에 대해 말합니다. 인용문 닫기. 개인적인 죄는 단순히 고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반영합니다. 마태복음 7:17.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행위와 우리가 존재하는 죄의 상태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꿀 수는 없지만요. ”

에티오피아 사람이 그의 피부를 바꿀 수 있겠느냐? 표범이 그의 반점을 바꿀 수 있겠느냐? 그러면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겠으나 할 수 없느니라.” 예레미야 13:23.

성경은 또한 죄와 죄악이라는 용어를 신중하게 미묘한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하나는 죄의 상태이고, 다른 하나는 죄의 개별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로버트 컬버는 이 구별을 명확히 했습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으면 죄와 죄들 사이에 중요한 구별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슷하게 들리지만 미묘하게 다른 두 구절과 관련하여 분명히 인식될 수 있습니다.

즉, 그는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 그리고 인용하여, 세상 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29. 전자의 죄는 분명히 사람들의 많은 악행을 가리킵니다. 후자의 죄는 세상의 죄로,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세상의 죄책감을 말합니다.

로버트 컬버, 체계 신학. 이에 대한 신학적 설명은 원죄라고 불립니다. 이 교리에는 창세기 3:1과 그 이후에 아담이 저지른 역사적 반역 행위가 포함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채 인간 존재에 들어간다는 사실. 시편 51:5. 에베소서 2:1. 그리고 아담의 죄와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속적인 반항 상태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고 모든 죄악적인 행위가 생겨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진노의 자녀입니다.

에베소서 2:3. 인용문, 원죄는 사람이 저지르는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과 존재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사람의 마음에 단 하나의 악한 생각도 떠오르지 않고, 그의 입술에 쓸데없는 말이 들어오지 않고, 그의 손에서 악한 행위가 나오지 않더라도, 인간의 본성은 이 죄

때문에 여전히 타락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태어나고, 그것이 악한 생각, 말, 행위로 구성되든 모든 실제 죄의 근원입니다.

인용문 닫기. Walter Nagel, Sin as the Cause of God's Wrath. CTM, 1952년 10월 1일.

필립 휴즈는 원죄 교리를 인용하여 설명합니다. 원죄 교리는 타락의 계기가 된 첫 번째 인간 아담의 첫 번째 죄가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인류의 죄이며, 그에 따라 인간 본성은 그 죄의 타락에 감염되고 인류 전체가 그 죄를 진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죄는 다음 범주를 반영하는데, 그것은 인간 마음의 깊은 타락입니다. 성경은 신학적으로 타락이라고 불리는 죄에 처한 인간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그래픽 은유를 사용합니다.

실명, 시력 상실, 귀머거리, 청력 상실, 병어리, 말할 수 없는 능력과 같은 신체적 질병은 각각의 경우에 필수적인 누락된 구성 요소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신체적 상태는 그 자체로 죄가 아니며,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9장에서 이를 분명히 지적하셨습니다, 죄인의 영적 상태를 묘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죄에 대한 은유가 풍부하며 인간의 타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게리 앤더슨은 죄를 짐으로 강조하는 구약성경에서 빚을 강조하는 신약성경으로 은유가 변화한 것을 기록합니다. 주기도문에서 마태복음 6:12에,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듯이 우리의 빚을 용서해 주십시오. 인간의 상태에 대한 이러한 설명 중에서 인간의 마음에 대한 성경적 분석보다 더 생생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모든 형태의 죄를 쏟아내는 샘으로 묘사합니다, 마태복음 15:19-20, 마가복음 7:21, 22. 적어도 그 중 하나는 읽어야겠어요. 손을 씻든 안 씻든 영적으로 더럽혀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것이 사람을 더럽힙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중상모략입니다. 이것들은 사람을 더럽히지만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아무도 더럽히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7:9에서 마음은 기만적이고, 절망적으로 병들고, 완전히 불투명하다고 묘사됩니다.

인용문,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다음 구절은, 나, 주님이 마음을 살폈노라. 홍수 이전의 큰 사악함은 마음의 부패에서 비롯되었다, 창세기 6:5과 8:21. 잠언 21:4는, "거만한 눈과 교만한 마음. 악인의 등불은 죄다."라고 선언한다. 사악한 행위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에스겔 11:21.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가증한 것과 가증한 일을 좇는 자에게는 내가 그들의 행위를 그들의 머리 위에 내리리라 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호세아 10:2에서 사람들은 마음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유죄로 간주됩니다.

예수께서는 마음에 여자를 부당하게 원하는 사람은 마음으로 그녀와 간통하는 행위를 저지른다고 가르치셨습니다(마태복음 5:28). 바울은 당신의 완고함, 내가 인용한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분노와 반역의 날과 분노의 날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날에 당신 자신을 위해 분노를 쌓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로마서 2:5). 히브리서의 저자는 마음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히브리서 3:12).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마음은 인간에게 있는 별도의 메커니즘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의 가장 깊은 측면에서 본 전체 사람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삶의 최악적인 활동은 거울이며, 개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마음의 상태를 거울로 보여줍니다. 다음 강의에서 저는 이 과정을 계속 진행하고 이와 같은 주제를 다룰 것입니다. 죄는 동시에 위임, 누락, 불완전을 포함합니다.

죄는 우리의 기질과 불순종 행위를 포함합니다. 죄는 죄책감을 포함하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죄는 성경의 하나님과 그의 의로운 성품에 대한 개인적인 모욕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창조물에서 반역적인 요소이며,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창조주를 세상에 보여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옵니다.

저는 제 노트에서 죄는 기만적이라는 것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는 인간 역사에서 확실한 시작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 패배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의 좋은 관심과 주의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인간과 죄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는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0, 죄의 현대적 중요성입니다. Mahony, A Theology of Sin for Today: A Biblical Description of Sin.